

[목회자 모임] 근원으로 돌아가자

2019. 10. 18. 이현래 목사

무엇이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원을 찾아가는 것이 제일 쉽다. 끝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끝이 없다. 아무것도 아닌 일도 시간이 지나다보면 커져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만들어서 지키려고 애를 쓴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근원에서는 단순한 것인데, 끝에 와서 보니까 복잡해져서 시간이 갈수록 계명은 더 많아지게 되었다. 끝으로 갈수록 계명은 더 많아진다.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 단순한 것이지만 예수님 당시에 200개가 넘는 지켜야 하는 계율이 있었다고 한다. 안식일 하나만 잘 지키려고 하더라도 아주 어렵다.

근원으로 돌아가야 문제가 아주 쉽게 해결이 된다.

성경에 나타난 구속에 관한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어디까지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나오던 출애굽 사건까지 간다. 자연히 보혈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많은 죄들을 씻기 위해서는 보혈이 필요하다. 어떤 동물의 희생과 피가 필요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의 죽으심을 설명하고 있다.

그보다 더 높이 위로 올라가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 왜 제사법전,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다. 구속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량의 법, 대속의 법이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원래 애굽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나안 땅에 살던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기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좀 더 발전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했다. 기업이라고 땅은, 분배된 기업은 바꿀 수 없다. 다 형제간이니까 아무리 무슨 일로 팔았던지 빼앗겼던지 간에 때가 되면 다 도로 돌려주는 법을 만들어 놓았다.

사람이 살다보면 빚을 질 때도 있고, 팔아먹어야 할 때도 있다. 팔았으면 기업지가 A라는 지파에서 B라는 지파로 넘어가 버린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돌리는 것이 대속이다.

친척 중에 누가 대신 빚을 갚아주고 찾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땅은 항상 베냐민 지파의 땅이어야 한다. 유다지파가 가져갈 수가 없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최장 50년이 되면 다 그냥 돌려주어야 한다. 누가 갚아주지 않아도 도로 돌려주어야 한다. 참 특이한 법인데 동족이라는 것 때문에 그럴 것이다. 동족이고 땅은 하나님이 분배해 준 것이라는 사상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50년 뒤에는 되돌려주어야 한다. 종이 된 사람도 50년이 되면 종의 족보가 없어진다. 아주 특이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근원적으로,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이 말이다.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대로 돌아가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지었으니까 사람을 짓고 나서 심히 좋았다고 한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되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보기에 심히 좋았다는 이것이 파괴되어서 사람 지은 것을 후회했다고 되어 있다. 지면이 사람 지은 것을 후회했다. 보기 좋았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뀌어서 지면에 사람 지은 것을 후회했다. 창세기 6장에서 그들이 천사와 결합해서 네피림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은 지면에 사람 지은 것을 후회했다고 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자기 목적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백성을 선택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한 백성을 만드신 것이다. 새로운 계획이다. 전에 망가져버렸던 것을 고치기 위해 새로운 길을 내놓았다. 이것이 구속의 역사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구속하기 위해서이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전 인류가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보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 어디에도 동산으로 회복하는 데가 없다. 전부 제사법전에 따라 백성이 죄를 지으면 동물을 가지고 희생제물을 드려서 그 피를 지성소에 뿌리면 백성의 죄를 사해준다는 이것이 구속이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했다. 신약성경을 읽으면 전부 보혈, 보혈을 많이 말한다. 보혈의 공로, 노래도 많다.

옛날에는 소나 양이나 이런 것으로 제사들 드렸으니 그 제사가 온전치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보배로운 피, 하나님 아들의 피가 드러졌기 때문에 완전하다,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고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한다. 얼른 들으면 그럴듯하다. 그런데 내가 아닌 것은 매 한가지이다. 동물이나 예수님이나 내가 아닌 것은 마찬가지이다. 남이 대신해준 것이니까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 만약 그것이 전부 효과가 났더라면 지금 교회가 아주 다른 상태가 되지 않았겠는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죽었는데 가만히 있겠는가? 나를 위해 죽었는데, 그것을 알고 가만히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교리로 넘어가버리고 구령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넘어가서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근원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좋다하신 그때로 돌아가야 한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어서 당신을 표현하고, 흠으로 지어서 농장을 만들고 아주 간단하다. 그 간단한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었다. 성경 한 권에 다 써도 다 쓸 수 없도록 복잡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법도 아주 간단하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라.”(창1:26,28)는 그 말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신하는 존재가 되게 된다. 그러면 결국 사람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뜻이다. 속에는 하나님이 생명이 되고, 겉에는 사람이 몸이 되어서 만유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다.

잃으면 뭐가 되는가? 네피림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창6:2) 그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것이 네피림이다.

지금 세상은 누가 지배하는가? 네피림이 지배한다. 어떤 의미에서든지 간에 네피림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서로 네피림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때 역사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도 세상은 네피림이 지배한다.

그리고 옛날에는 네피림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다. 황제, 이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생육하고 번성케 해야 될 흙으로 지어진 인간을 벽돌을 만들었다. 그러면 농사가 안 된다.

점점 문명은 발전하는데 발전하는 것과 같이 인간성도 상실되어 가고 있다. 사람이 과연 기계보다 필요한가?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 기계 하나가 하는 일이 사람 천명이 하는 일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다. 기업이 입장에서 보면 기계 하나가 사람 얼마보다 더 귀중하다. 점점 이렇게 되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만 필요하다. 네피림만 필요해진다. 사람 설 자리가 없어진다. 인격을 말하지만 설 자리가 없는 인격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구속은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권리를 회복하는 문제이고, 인권을 회복하는 문제이다.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나와 관계없지 않은가? 아니다. 우리가 그런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 취급을 제대로 못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낼 귀중한 것, 영광스러운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이 허무해진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고 한 말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한 말이다. 능력 있는 자들은 능력 없는 자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뛰어내려보라고 말하는 것이다.

능력이 없으면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한다.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세계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그것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의 일이다. 세상에 나가보면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지 못한다.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보니까 사람이 아니고 환자이다. 거기서 사람을 주장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냥 환자이다. 병원에 가서 보니까 한 세계가 있는데 기계가 돌아가는 것 같다. 나

는 기계가 돌아가는데 물건이 되어 있다. 사람이라고 해보았자 소용이 없다. 여러분들은 다 목사님이니까 교회에 가면 목사님, 목사님 하는데 세상에 나가보라. 아주 우습게 돼버린다. 다 우스운 사람이 되어버린다.

예배당을 지으면서 처음에 생각할 때, 군청에 관계있는 공무원을 만나서 인사라도 해야 되니까 군수를 만나려고 꽃병을 하나 들고 갔는데, 아주 우습게 생각하니까 민망스러웠다. 인사하려고 왔다고 하니까 쪽지 하나를 꺼내 보더니 '문제가 있네요. 민원이 있네요.'하고 나가버린다. 무슨 민원이 있는지 우리는 해결하고 대답을 하려고 갔는데 그냥 일어나서 나가버린다. 목사라고 해도 교회에서 목사지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형제 하나를 보냈다. 법률도 아니까 함부로 하지 않겠지 하고 보냈더니 대판 싸움만 하고 왔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관공서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두 사람 있는데, 하나는 목사고 하나는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라고 한다. 그런데 나는 제일 싫어하는 것을 처음에 하여 애를 먹어서 허가를 얻는데 10년이 걸렸다. 그동안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일어났다. 물가가 상승하니까 반 이상의 돈이 더 들었다. 그것은 내가 처음으로 세상을 접해보는 기회였다. 사람이 사람 취급을 제대로 못 받는다.

원점으로 돌아가자. 이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 인권을 찾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세상에서 인권을 짓밟히면 억울하다. 할 말 못하고 당하기만 한다. 대*령 하던 사람도 한번 불려갔다 오더니 창피해서 자살해버린다. 검찰에 들어가면 밤새도록 잠을 재우지 않으니까 사람 취급이 안 된다. 그분의 유서에 살아보아야 욕 밖에 없다는 말을 썼다. 아주 깨끗한 사람이다. 살아보아야 욕 밖에 없다. 한번 갔다 오더니 그랬다.

대*령 하던 사람이 어디로 도망을 가겠는가? 그런데 묶어서 데리고 다닌다. 개도 묶지 않고 다니는데, 대통령 하던 사람을 수갑을 채워서 끌고 다닌다. 대통령인데 생각해보면 자살하고 싶을 것이다. 출국 금지하면 못 나가고 또 도망을 가겠는가? 그런데도 그렇다. 참된 인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값을 못하고, 사람 노릇을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된다.

우리의 구속은 원위치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참된 구속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려면 하나님께서 쓴 용도에 맞아야 한다. 다른 것을 다 잘해도 그것이 맞지 않으면 멸망이라는 말이 그 말이다. 하나님에게 쓸모가 없어졌다는 것이 멸망이다. 알고 보면 간단하다.

소위 원죄라고 하는데, 내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배우지 않아서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원죄라는 것이 너무 애매모호하다. 카톨릭에서 나온 말인데, 카톨릭에 써놓은 것을 보니까 너무 애매모호하고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개신교 역시 마찬가지이다.

근본을 잃어버렸으니 어디로 돌아가겠는가? 회개하라는 말을 밤낮 말하는데 어디로 회개할 데

가 있는가? 돌아갈 데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부터 틀렸구나. 그 생각이 들었다. 밑에 것을 고쳐보아야 안 된다.

원천에서 물이 나빠져서 나쁜 물이 나오는데, 밑에서 그것을 고치려고 하면 몇 백배의 비용이 더 들어간다. 또 그것이 되는가? 안 된다. 교회들도 세상에 나가서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끝도 갖도 없다.

중국의 유교는 중국이라는 문화적 바탕에서 생긴 것이다. 공자님 맹자님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그 바탕이 그래서 그런 분이 나왔다. 인도에서 힌두교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바탕이 그래서 그렇다. 그리고 불교가 그냥 나왔는가? 힌두교의 바탕 위에서 나왔다. 기독교가 희랍에 들어갔다. 그러면 당연히 희랍화 되고 만다. 희랍 문화를 완전히 제압하고 나올 방법이 없다. 너무 문화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면 시대가 바뀌지면 바뀌질 때마다 뒤치닥거리다가 만다. 뒤치닥거리도 안 된다.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은 교회문제라기 보다 경찰서 문제이고 법률문제이다. 사람들끼리 문제니까 서로 해결해야 된다. 해결이 안 되면 법이 개입되어 해결해야 한다.

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신약성경도 보면 너무 문제가 많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쓴 것이다. 그러면 끝이 없다. 신약 성경을 쓸 당시와 지금은 또 얼마나 달라졌는가? 전혀 필요 없는 말도 많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필요 없는 말도 많다.

근원은 간단하다.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을 듣고 선약과를 먹었다는 것이니까 문제는 하나님 같이 되려는 것이다. 누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가? 누가 그런 사람이 있는가? 다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지만 그렇지 않다.

피로 유전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의 본성을 보고 쓴 말 같다. 사람 속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려는 본성이 자리 잡고 있다.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따로 없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이 영원한 문제이고 앞으로도 있을 문제이고 계속 있다.

신과 같이 된다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그 말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써야 하는데, 자기 맘대로 살고 싶다는 그 말이다. 어쩌면 당연하기도 하다. 세상으로 본다면 당연하다. 요즘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로봇으로 산다는 말인가? 내 주도 하에 살아야지, 인간 주도적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한다.

물론 인간 주도적으로 살아야 하지만 딱 한 가지는 메여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쓰심에 메여있어야 한다. 그것을 싫어하고 나간 것이다.

인간에게 주신 제한이 나는 참 복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굉장히 불편한 것이 많지만 아주 복된 것이다. 우리 얼굴이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으면 네피림이 된다. 그러므로 제한이 되어 있어야 한다.

흙에는 씨를 심으면 꼭 그 씨의 열매가 나와야 한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와야지 금년에 무값이 좋다고 농부가 콩을 심었더니 밭이 스스로 알아서 무를 생산하면 안 된다. 팥을 생산해도 안 된다. 이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이다. 값이 있든지 없든지 주인이 뿌려놓은 그것이 나와야 한다.

이것은 절대적인 제한이다. 이것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것이다. 가락동 시장의 사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 내가 더 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자연히 자기가 가락동 시장의 가격을 시장조사를 해보고 배추 값보다 무값이 비싸다고 하면 농부가 배추를 심어 놓았는데, 밭이 무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고, 그분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다. 나는 경험을 해보니까 참 이상하다. 여러분도 다 경험 하셨겠지만, 내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하고 생각한 일은 다 실패했다. 꼭 하나님이 일부러 막은 것 같다. 어찌 하나도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원하는 일은 이상하게 하나도 안 된다.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그래도 생각이 있으니까 또 머리를 움직여본다. 이쯤 되면 관찮겠지 하고 하는데, 또 잘 안 된다. 참 이상하다. 잘된 사람도 많던데 나는 왜 이렇게 안됐는지 모르겠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복이구나. 만일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됐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았는데, 틀림없이 그렇게 안 되었을 것이고 엉뚱한 길로 갔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제한을 두신 것 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한 안에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인 것 같다. 너는 콩을 심으면 꼭 콩을 내라, 절대로 다른 것을 내면 안 된다는 이것이 축복이다. 비록 콩 값이 똥값이 되더라도 내가 심은 대로 내 놓아라. 이것이 축복이다.

뭐가 잘 안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 안 되는 것이 복일수도 있다. 나는 지금까지 안 된 것이 복이 되었다. 이상하지 않은가? 안된 것마다 복이 된다. 되지도 않았지만 된 것은 복이 안 된다. 내가 만일 힘이 있었으면 된 것도 많았을지 모른다. 그런데 되었으면 복이 안 된다. 나는 힘이 없으니까 해놓으면 안 되고, 해 놓으면 안 되었다. 안 된 것이 복이 되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감사를 하게 된다. 아무리 잘되었어도 결과에 가서 감사가 안 되면 불행이다.

바로 그 제한이 싫어서 뛰쳐나간 것인데 결과가 비참하다. 바벨탑을 쌓다가 허물어졌다. 비참하다. 농사도 안 된다. 나는 걱정되는 것이 이 좋은 농지를 전부 아파트를 짓는다. 언젠가 식량전쟁이 나면 저것을 언제 뜯어서 논을 만들겠는가? 걱정이다. 지금 싼 농산물 수입해서 먹으니까 논이 없어도 된다고 하지만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올수도 있다.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로 복귀된 것은 순전히 농산물 때문이라고 한다. 땅은 넓지만 농산물이 안 되기 때문에 미국 농산물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이 농산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다 굶어죽는다. 그래서 큰 소리를 못 치는 것이다. 우리도 그럴 날이 올지 모른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대로 받은 밭으로 쓰여야 되고, 얼굴은 얼굴로 쓰여져야 된다. 사람이 은혜와 감사로 넘치면 사람 얼굴이 다 빛나고 좋아진다. 원망과 불평으로 쌓여있으면 얼굴이 검어지고 흉해진다. 그렇게 변한다.

근원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아무것도 아니고 아주 간단하다.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다는 그것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른 것도 많겠지만 나는 부딪혀오는 것이 없다. 저렇게 죽은 것으로 어째서 나를 위해서 흘린 보혈이라고 하는가? 그것을 도저히 모르겠더라. 보혈의 효과가 나한테는 없었다.

이제 와서 보니까 저 죽으신 것이 정말로 나를 위해 죽었구나. 이제야 그것이 확실하게 알아진다. 전에는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될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한테 해준 것이 없고 하나님이 다 해준 것이니까 예수님이 해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좋은 분인 줄 알지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고 생각이 안 되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죽었구나. 그렇게 알아진다.

저렇게 저런 분도 죽는 것을 나한테 보여주는구나. 나를 포함하고 있구나. 그 안에 나를 포함하고 죽었구나. 내가 주와 함께 죽었다는 말도 알아지고, 주와 함께 살리라는 말도 알아진다. 그와 함께 죽었으니까 그와 함께 살지, 그와 함께 죽은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와 함께 살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내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확실히 믿고 그렇게 산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도저히 그것이 안 되었다. 주님이 계신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까? 나는 그것이 안 되었다. 목사님들은 되시는지 모르겠다. 잘되시는 분들은 하면 되고, 안 되시는 분들은 나처럼 우리 앞에서 죽으신 분을 보면 된다. 아주 간단하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죽은 것을 내가 죽었는가? 그분이 죽었다. 일어난 것이 그분이 일어난 것이지 내가 일어났는가? 그런데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기가 막힌 일이다. 죽을 때도 함께 죽었고, 죽은 자리에도 내가 함께 있고, 그러면 산 자리에도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쉬운 것이다. 그래서 안타깝다.

어떤 자매는 이번에 와서 이것을 알고 나니까 날아갈 것 같다는 것이다. 나는 이제 날아갈 것 같다는 것이다. 내 인생의 문제가 다 해답이 생겼다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 저 소리를 자꾸 하느냐는 사람도 있다. 아주 신기한 일이다.

이것이 온 천하를 꺾는 자가 우리를 거기에 묶어 놓았구나. 묶어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뛰어내려봐라. 그것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 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눅4:5,6)고 되어 있다.

천하만국의 영광은 이미 사탄에게 넘어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좋아할 일이 못된다. 왜냐하면 사탄이 자기에게 절해야 준다는 것이다. 자기 것이라는 것이다. 만일 그것이 거짓말이면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 것이라고 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

나는 사람이 이탈될 때, 모든 영광을 권한을 다 양도해버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다는 말은 어쩌면 잘못된 것이 더 많을 수 있다. 세상이 뭘 보고 좋아하겠는가? 자기들이 볼 때 존경스럽고 좋은 것을 좋아하지 하나님께 쓰인 것을 보고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다. 우리가 이것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야지 무조건 잘되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세상이 짝 갈라지더라. 섞여있지 않고 갈라진다.

그분의 죽으심을 보면 세상이 짝 갈라진다. 저런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구나.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그런 말도 하지도 않는다. 예수에게 한 말이지 우리 같은 사람에게 너 뛰어내려보라고 마귀가 그런 말을 하겠는가? 안 한다. 왜 하필 예수보고만 그렇게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구속하는 길이 되었다. 내 대신에 받아버리니까 내가 그 안에 포함된 것이 보인다. 내용은 다 우리에게도 한 말이다. 너 뛰어내려봐. 그러면 내가 믿을 거야. 너 인간이잖아. 숨이 코에 붙은 인간이잖아. 네가 예수 잘 믿는다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된다는 말이냐? 그렇게 우리 인간을 계속해서 송사하고 있다. 우리가 잘되어도 송사하고, 못되어도 송사한다.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요, 처음부터 속이는 자다.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세 사람이다. 살인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술객들이다. 그런데 딱 불거져 나온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아주 단순하고도 쉬운 일이다. 잘못하면 세상에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다.

너무 쉬운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고, 또 너무 어려운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다.

우리가 사람들을 인도할 때, 확실하고도 쉬운 길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복잡한 길로 인도해서 헛갈리게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도 쉬운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지금 목회를 다시 한다면 전보다 훨씬 더 쉽게 하겠다. 아주 쉬운 길로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길로 하고 싶다.

성경 66권을 언제 다 공부하고, 언제 다 알겠는가? 그리고 다 아는 사람들을 보면 머리가 너

무 복잡하다.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너무 복잡하다. 그것은 알아도 되고, 알지 않아도 되는 일이다.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되는 일이다. 물론 잘 보면 도움이 되지만 그렇게 복잡해서는 안 된다.

원불교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어떻게 280개가 되는 계율을 다 지키겠는가? 열 가지만 뽑아서 지키자고 만든 것이 원불교이다. 그랬더니 쉽다고 사람들이 많이 온다. 우리도 아주 복잡하게 10계명 20계명 할 것이 없고, 원점으로만 딱 돌아가면 된다. 그러면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만드실 때, 격이 정해지면 그 격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 중령으로 있다가 대령으로 올라가면 당장 달라진다고 한다. 모든 것이 다 달라진다. 대령으로 있다가 별을 하나 달면 수십 가지가 달라진다고 한다. 계급에 따라서 그 안에 포함된 축복이 있다.

사람도 사람의 위치에 있으면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복이 그 안에 있으니까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다른 데 가서 찾으려고 하니 되겠는가? 남의 자리에 가서 넘보고 있으니까 되겠는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축복만 해도 너무 많다. 그 축복이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고, 영원한 축복이다. 사람들을 그곳으로 인도해야 한다.

참된 축복 안으로 인도한다면 거기에 대한 상급도 크지 않겠는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롬10:15)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

내가 쉬워야 남도 쉽게 한다.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렵게 한다. 시집살이 심하게 한 사람들이 시어머니가 되면 쉽게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 더 어렵게 한다고 한다. 며느리가 시집와서 편하게 있으면 속이 상해서 못 견뎌한다고 한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 되냐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한다. 시집살이를 편하게 한 시어머니를 만나야 편하다고 한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한 사람이라야 남을 편하게 한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운 사람은 남을 또 어렵게 만들게 마련이다. 주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특별히 사역자들, 주님에게 일생을 바치기로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만큼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한다.

나는 일주일에 한번이지만 여러분을 보는 것이 아주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다. 또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형제들이 있다는 것, 동지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쉽게 하자.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11:28)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감사합니다.